

# '우금산성'에서 성벽·계단식 석축 확인

## 내일 발굴현장 설명회 개최

부안군(군수 권익현)이 발굴조사 중인 '부안 우금산성(禹金山城, 전라북도기념물 제20호)' 유적에 대한 학술지문회의 겸 현장설명회가 내일 오후 2시에 발굴현장에서 개최된다.

부안 우금산성은 백제 패망 후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주류성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사는 2017년 조사에서 확인된 동문지와 연결되는 성벽의 축조방법 등을 확인하기 위한 발굴이다. 올해 9월 시작해 내년 12월 마무리될 예정으로 현재 ▲ 동문지에서 이어지는 성벽구조 ▲ 계단식 석축시설 등이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동성벽의 축성기법은 협축식(夾築式, 성벽의 내외벽면을 나란히 돌로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밝혀졌다. 잔존하는 성벽의 폭은 3~6m이며, 동문지의 남쪽보다 경사도가 완만한 북쪽 성벽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구조이다. 외벽은 풍화안반토에 지대석을 놓은 후, 그 위에 갠 돌을 이용하여 수직에 가깝게 바른층 쌓기로 축조하였으며,



부안 우금산성 동벽(외벽) 전경.

성돌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 조그마한 갠 돌을 끼워 넣었다. 내벽은 소형의 갠 돌을 이용하여 허튼층 쌓기로 축조하였다. 또한 성벽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내벽에서 6m정도 떨어진 곳에 길게 갠 돌을 이용하여 계단식으로 쌓아올린 후, 내벽과 계단식 석축시설 사이에

는 성질이 다른 흙을 번갈아가며 성토(盛土, 흙을 쌓아 올림)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우금산성의 동문과 이어지는 성벽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향후 복원·정비 및 사적 지정의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전북교육청, 내일 통일인문학 '담담(談談)' 진행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내일 오후 3시 2층 강당에서 본청 전직원과 직속기관·지역교육청 교직원,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 평화통일교사지원단을 대상으로 '함께 하는 통일인문학 특강 담담(談談)'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통일교육 공공부문 의무화와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한 이번 특강은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화해, 분단의 시대를 건너 평화로운 미래를 여는 통일문제를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낼 예정이다. 무엇보다 통일교육이 평화와 인권을 연계한 감성과 소통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통일인문학 특강은 김승환 교육감의 진행으로 서평과 감사소개에 이어, 한국 기자로는

유일하게 단독 방북 취재에 성공한 진천규 기자가 강연자로 나서 변화하고 있는 최근 북한의 생생한 모습을 전할 예정이다.

진천규 기자의 저서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를 통해 북녘 사람들의 겉모습 뿐 아니라 감정과 생각까지 담아내며 남과 북이 하나되는 미래를 그리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공부문 통일교육 의무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북한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통일인문학 특강이 전직원의 평화 감수성과 공감대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세계스카우트잰버리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부안군민의 염원 모아"

## 11일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서

## 부안군민 열린음악회 열려

오는 11일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2023년 세계스카우트잰버리 성공개최 기원-부안군민 열린음악회' 공연이 펼쳐진다.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2018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북도 문화관광재단 후원으로 수준 높은 공연들을 군민에게 선보이고 있어 이번 공연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공연은 클라무필하모닉오케스트라(단장 유수영)의 연주와 부안 출신 스타 김종석의 사회와 가수 진성 등이 출연하고 가수 서지호가 특별 출연하는 등 부안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가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 2018년 한 해 동안의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 버리고 즐겁고 흥겨운 시간을 만끽 할 수

있을 것이다.

클라무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부안군 공연장 상주단체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9년 4월 금년새의 지휘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창단 연주를 시작으로 매년마다 10회 이상 정기연주회 및 기획연주회를 하고 있다. 이번 공연을 통해 상주 예술단체로서 더욱 친숙하게 부안군민에게 다가가고, 부안에서 개최되는 세계스카우트잰버리 성공개최를 기원하며 열린음악회에 뜻 깊게 참여하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군민들을 위하여 기획한 본 공연에 많이 오셔서 부안출신 스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 세계스카우트잰버리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부안군민의 염원을 모아보는 시간도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 공연은 11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선착순 무료(8세 이상 관람가능) 입장이 가능하다. /부안=김석진 기자



한국산악사진가협회 이윤승 이사장의 덕유산 빙화.

# 아름다운 한국의산 한자리에서 감상

## 한국산악사진가협회 10주년 사진전... 내일 개전식

산과 사진을 좋아하는 사진작가의 모임인 사단법인 한국산악사진가협회(이사장 이윤승)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한국의산'을 주제로 전시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내일 오후 5시 개전식을 시작으로 11일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제2 전시실에서 열리는 전시회에는 70명의 산악사진 전문작가들이 참여해 한라산을 비롯해 설악·지리·덕유·기야·백두산 등 유명산의 사계와 일출, 일몰을 담은 사진을 선보인다.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는 협회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2017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등 국제스포츠대회에서 전시회를 열어오며 전세계인에게 한국의산의 아름다움을 선보

여 찬사를 받았다.

또한, 창립이후 국립공원과 유명산에서 50여 차례의 산상 전시회를 여는 등 많은 활동을 해오고 있다.

협회는 아름다운 자연을 후손에게 되돌려 주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 지난해 국립공원 덕유산과 생태계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고산대 자생종 식재작업에 나섰으며 올해는 국립공원 지리산과 업무협약을 맺고 자연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이윤승 이사장은 "산과 사진을 사랑하는 회원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보존에 앞장서 후손에게 건강한 환경을 물려 주기 위해 한국의산을 찾아 묵묵히 작품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전주국제영화제 출품작 공모... 내년 1월까지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내년 5월에 열리는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를 빛낼 한국영화 출품작 공모를 내년 1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한국경쟁, 한국 단편경쟁으로 이뤄진 경쟁부문과 함께 코리아 시네마스케이프, 전북을 기반으로 제작된 지역영화로 나눠진 비경쟁부문이다. 작품 길이 40분 이상을 장편, 40분 미만을

단편으로 분류하며 극영화, 다큐멘터리, 실험영화, 애니메이션 등 모든 장르를 출품할 수 있으며, 장르와 형식에 제한은 없다.

다만 국내에서 상영되지 않은, 2018년 1월 이후에 제작된 작품에 한 한다.

지역영화 부문에는 전북에 주소지를 둔 감독이나 전북지역 대학생이 출품할 수 있으며, 전북에서 50% 이상 촬영한 작품도 가능하다.

접수는 영화제 출품사이트로 하면 된다. 본 선작은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램 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충지 집행위원장은 "전주국제영화제는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실험정신을 가진 작품들을 관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해왔다"며 "올해도 영화제를 빛낼 참신한 작품들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는 내년 5월 2일부터 11일까지 영화의 거리 일대에서 열린다. /뉴시스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